numbers
vol. 297

대한민국 치매 리포트

내년(2026년)이면 치매 환자 100만 명 넘는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① 우리나라 가구당 가계 순자산
② 전 세계 외로움 실태

2025. 7. 29.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내년(2026년)이면 치매 환자 100만 명 넘는다!

치매(癡呆)는 한자어 그대로 풀이하면 '정신이 흐리고 멍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단어가 다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어 '인지장애', '노인성 인지질환' 등의 표현으로 대체하는 추세다. 흔히 '알츠하이머'라 불리는 질환은 치매의 대표적인 원인 질환 중 하나일 뿐, 치매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우리사회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치매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5년에는 국내 치매 환자 수가 97만 명으로 추정되며, 내년이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 기준으로 추산한 2025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약 1,051만 명 대비 9.2%에 해당하는 수치로,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는 셈이다.

이번 넘버즈 297호에서는 치매의 유병 현황과 인식, 치매 환자 및 가족이 겪는 어려움, 그리고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 다양한 데이터를 다루었다. 이를 통해 교회의 돌봄 사역 영역을 재조명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교회가 보다 적극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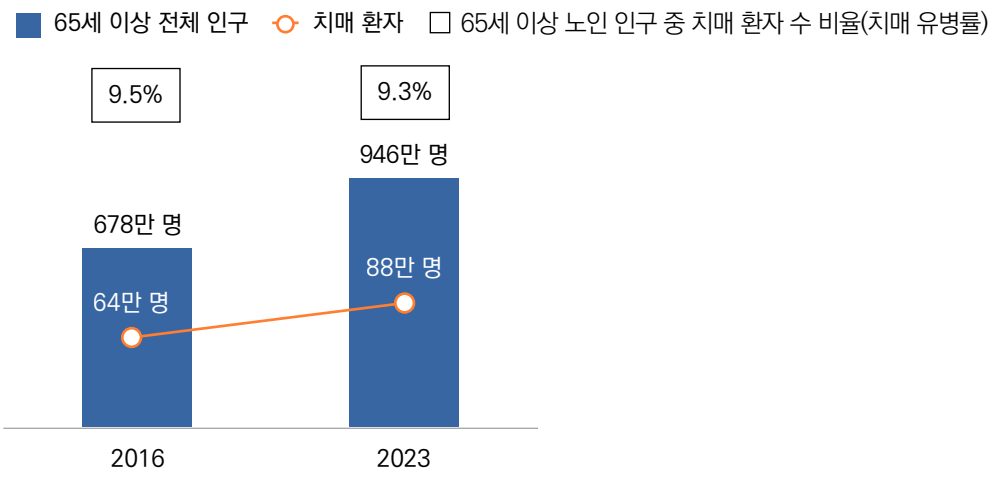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01 [치매 현황과 추세]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는 9.3%!

- 보건복지부의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의 비율은 9.3%로 나타났다. 즉 노인 10명 중 1명가량이 치매 환자인 셈이다.
- 7년 전 동일 조사보다 치매 환자 수는 24만 명(38%) 늘었으나, 치매 유병률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와 같은 치매 유병률 감소에는 1차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약 268만 명 증가한 요인 등이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노인 치매 환자 수 및 유병률 (6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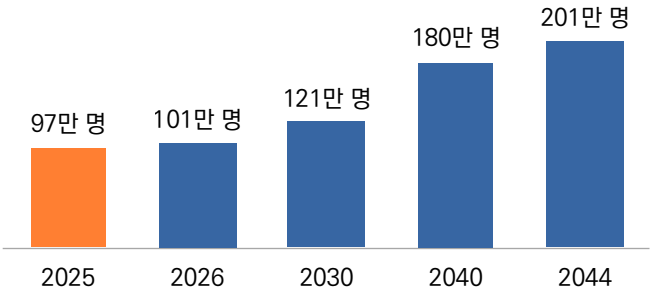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03.13. (중앙치매센터·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갤럽조사연구소, 1차 조사: 60세 이상 1만1,673명(인지 선별 검사), 2차 조사: 1,900명(진단검사/사례분류), 3차 조사: 923명(치매돌봄 조사, 환자 564명+보호자 359명), 2023.08.22.~2024.03.18.)

내년(2026년)이면 치매 환자 100만 명 넘는다!

- 인구 고령화로 치매 환자 수는 빠르게 늘어나, 2025년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97만 명에서 2026년이면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또, 200만 명을 넘는 시점은 2044년으로 예상했다.

[그림]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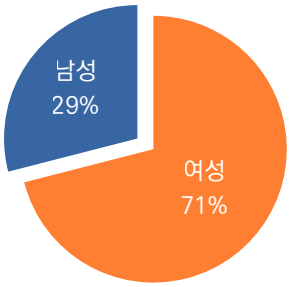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03.13. (중앙치매센터·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갤럽조사연구소, 1차 조사: 60세 이상 1만1,673명(인지 선별 검사), 2차 조사: 1,900명(진단검사/사례분류), 3차 조사: 923명(치매돌봄 조사, 환자 564명+보호자 359명), 2023.08.22.~2024.03.18.)

80세 이상, 4명 중 1명꼴 '치매'!

- 전체 치매 환자 수를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여성(71%)이 남성(29%) 대비 압도적으로 높았고, 연령별로는 70대까지는 10%미만인데, 80대에 들어서면 26%까지 높아지면서 '80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꼴로 치매환자로 나타났다. 특히 80세 이상 여성의 경우 10명 중 3명이 치매환자인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그림] 성별 치매 환자(상병자) 수 비중 (2019)



[그림] 성별·연령별 치매 환자 비율*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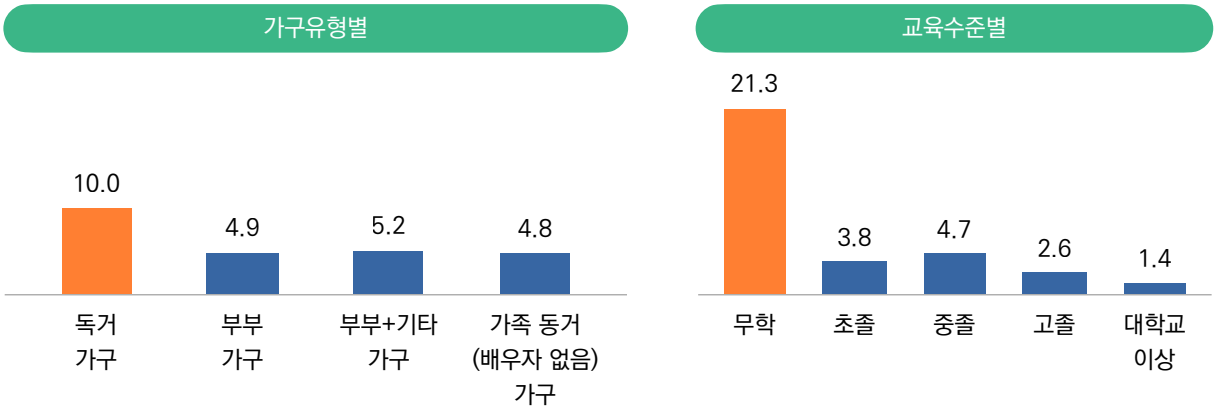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전체	3%	8%	26%
남성	2%	6%	19%
여성	4%	10%	30%

※출처 :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중앙치매센터,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0, 2021.04.15. (전국 치매상병자수 현황 2010-2019,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
*행정 자치부의 2019년 12월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연령별 총 인구 수를 치매 환자 수로 나누어 재산출함.(연령별 치매 환자수/연령별 총 인구수X100)
Note) 치매 환자는 '치매 상병자 수' 기준이며,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6개)를 주상병으로 받고, 입원, 외래, 약국 이용을 연 1회 이상 이용한 사람을 의미함

1인 가구, 교육수준 낮을수록 치매 위험 높아진다!

- 이번에는 가구유형별·교육수준별 치매 유병률을 살펴본다. 가구유형으로 독거가구(1인가구)가 10.0%로 다른 가구유형보다 크게 높았고, 교육수준은 낮을수록 유병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가구유형별·교육수준별 치매 유병률 (2023, 65세 이상,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03.13. (중앙치매센터·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갤럽조사연구소, 1차 조사: 60세 이상 1만1,673명(인지 선별 검사), 2차 조사: 1,900명(진단검사/사례분류), 3차 조사: 923명(치매돌봄 조사, 환자 564명+보호자 359명), 2023.08.22.~2024.03.18.)

02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
치매 노인의 우울 수준, 전체 노인보다 2배 이상 높아!

- 치매 노인의 우울 수준, 신체활동 비실천율, 만성질환 수준 등 전반적 건강 상태는 전체 노인과 비교했을 때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먼저 우울 수준은 전체 노인 3.1점(정상 범위)인데 반해 치매 노인은 6.5점(우울증후군)으로 2배 이상 높았으며, 신체활동 수준 역시 전체 노인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 1인당 평균 만성질환 개수도 치매 환자는 4.7개로 전체 노인 평균 2.2개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치매 노인과 전체 노인의 건강 상태 비교

	전체 노인	치매 노인*
우울 수준	3.1점	6.5점
신체활동 비실천율	47%	82%
1인당 평균 만성질환 개수	2.2개	4.7개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03.13. (중앙치매센터·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갤럽조사연구소, 1차 조사: 60세 이상 1만1,673명(인지 선별 검사), 2차 조사: 1,900명(진단검사/사례분류), 3차 조사: 923명(치매돌봄 조사, 환자 564명+보호자 359명), 2023.08.22.~2024.03.18.)
*지역사회 치매 환자와 시설·병원 치매 환자의 평균 값을 구함
Note) 항목별 설명
- 우울 수준 :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SGDS-K)로 측정하였으며, 15개 문항에 대해 해당 여부를 파악함. 15점 만점으로 다음의 기준으로 구분함. 정상-5점 이하 / 우울증후군-6~9점 / 주요우울장애 10점 이상
- 신체활동 비실천율 : 지역사회건강조사의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고강도 신체활동 1일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또는 중등도 신체활동 1일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과 '걷기 실천율'(저강도 신체활동 1일 30분 이상, 주5일 이상 실천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신체활동 하지 않음' 응답자 비율임

비동거 가족, 1주일에 '3일가량'은 치매 환자 돌본다!

- 치매 환자 가족(시설·병원 이용자 제외) 중 비동거 가족의 지난 1주일 동안 치매 환자 돌봄 시간을 조사한 결과, 주당 평균 2.8일, 하루 평균 4.8시간, 주간 평균 총 18시간의 돌봄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비동거가족의 경우 동거가족보다는 상대적으로 돌봄 부담이 적으나, 매주 3일가량을 방문해 직접 수발/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가족이 감당해야 할 높은 돌봄 부담을 엿볼 수 있다.
- 한편, 요양병원이나 시설 입소 전 치매 환자를 가정에서 직접 돌본 기간은 27.3개월로 약 2년 3개월가량이었다.

[그림] 치매 환자 가족(비동거)의 1주일간 평균 돌봄 시간 (지역사회 환자 가족 기준)

주당 평균 돌봄 일수
2.8일

1일 평균 돌봄 시간
4.8시간

주당 평균 돌봄 시간
18시간

[그림] 요양병원/시설 입소 전 가족 돌봄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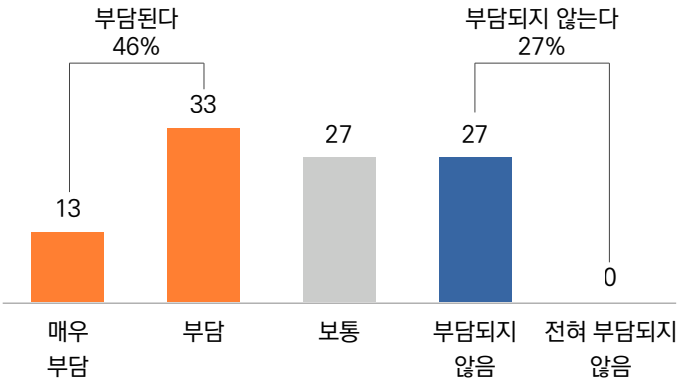
27.3개월(2년 3개월)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03.13. (중앙치매센터·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갤럽조사연구소, 1차 조사: 60세 이상 1만1,673명(인지 선별 검사), 2차 조사: 1,900명(진단검사/사례분류), 3차 조사: 923명(치매돌봄 조사, 환자 564명+보호자 359명), 2023.08.22.~2024.03.18.)

치매 환자 가족, 절반 가까이 '돌봄 힘들다'!

- 치매 환자 가족 중 주돌봄자를 대상으로 '치매 환자 돌봄 부담' 정도(매우+약간 부담)를 물은 결과, 환자 가족 절반 가까이(46%)는 '돌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주돌봄자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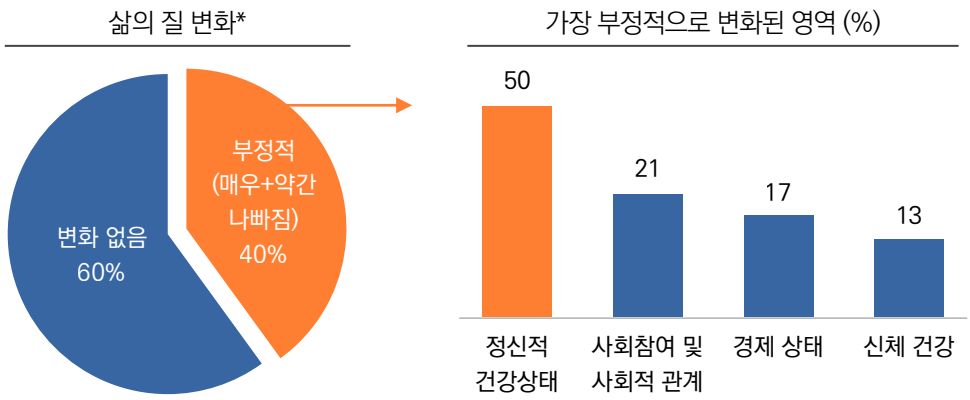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03.13. (중앙치매센터·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갤럽조사연구소, 1차 조사: 60세 이상 1만1,673명(인지 선별 검사), 2차 조사: 1,900명(진단검사/사례분류), 3차 조사: 923명(치매돌봄 조사, 환자 564명+보호자 359명), 2023.08.22.~2024.03.18.)

치매 환자 가족 5명 중 2명, 삶의 질 '부정적' 변화 경험!

- 치매 환자 돌봄 전후 삶의 질 변화에 관해 물은 결과, 치매 환자 가족 5명 중 2명꼴로 '부정적'(매우+약간 나빠짐)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고, 이들이 가장 부정적 변화를 겪은 영역은 '정신적 건강상태'(50%)로 나타났다.

[그림] 치매 환자 돌봄 전후 삶의 변화 (지역사회 환자 가족 기준)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03.13. (중앙치매센터·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갤럽조사연구소, 1차 조사: 60세 이상 1만1,673명(인지 선별 검사), 2차 조사: 1,900명(진단검사/사례분류), 3차 조사: 923명(치매돌봄 조사, 환자 564명+보호자 359명), 2023.08.22.~2024.0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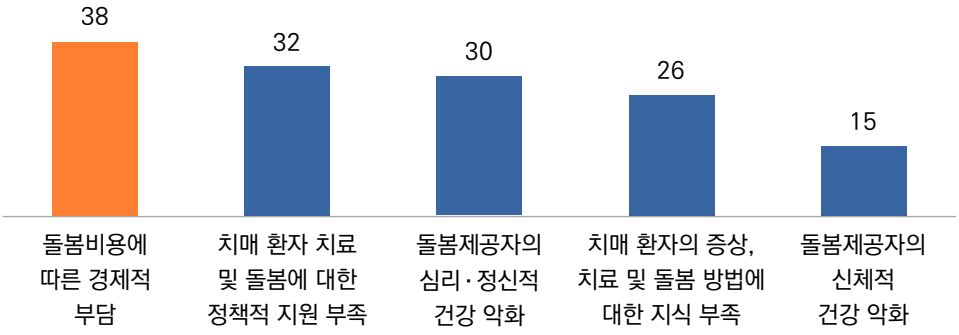
*5점 척도(매우 나빠짐, 약간 나빠짐, 변화 없음, 좋아짐, 매우 좋아짐)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치매 환자 돌봄 과정에서의 어려움,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건강 악화’!

- 치매 환자 가족이 돌봄 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돌봄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3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치매 환자 치료/돌봄에 대한 정책적 지원 부족’ 32%, ‘돌봄제공자의 심리·정신적 건강 악화’ 30% 순이었다. 앞서 ‘돌봄 전후 삶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변화된 영역’과 ‘돌봄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 모두 공통적으로 환자 가족의 정신적 건강을 언급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치매 환자 돌봄 가족의 정신건강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다.

[그림] 치매 환자 돌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 (지역사회 환자 가족 기준, 1+2순위, 상위 5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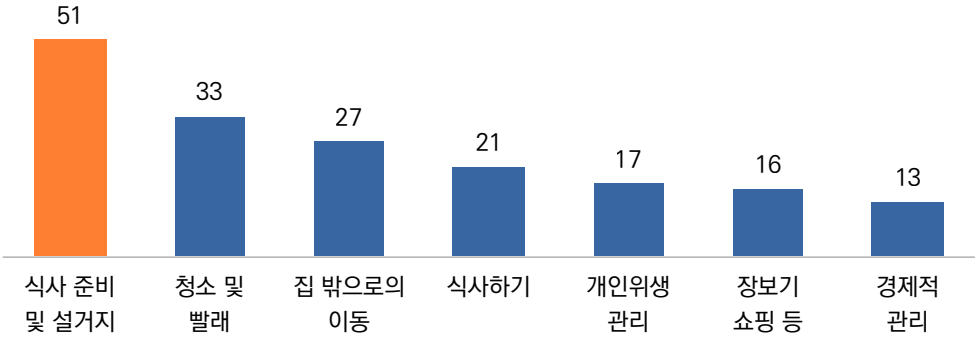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03.13. (중앙치매센터·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갤럽조사연구소, 1차 조사: 60세 이상 1만1,673명(인지 선별 검사), 2차 조사: 1,900명(진단검사/사례분류), 3차 조사: 923명(치매돌봄 조사, 환자 564명+보호자 359명), 2023.08.22.~2024.03.18.)

*5점 척도

치매 환자 가족, 가장 도움이 필요한 영역은 ‘식사 준비와 집안일’!

- 지역사회에서 가정 돌봄을 받고 있는 치매 환자의 가족들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가장 필요한 활동으로 꼽은 것은 ‘식사 준비 및 설거지’(51%)였다. 이어 ‘청소 및 빨래’(33%), ‘식사하기’(21%) 등 기본적인 가사 관련 활동의 돌봄 필요성이 컸다. 이 외에 ‘집 밖으로의 이동’(27%)과 같은 외출 관련 도움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활동 (지역사회 환자 가족 기준, 1+2순위, 상위 7개,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03.13. (중앙치매센터·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갤럽조사연구소, 1차 조사: 60세 이상 1만1,673명(인지 선별 검사), 2차 조사: 1,900명(진단검사/사례분류), 3차 조사: 923명(치매돌봄 조사, 환자 564명+보호자 359명), 2023.08.22.~2024.03.18.)

03 [치매 관리 비용]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 평균 2,436만 원!

-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을 산출한 결과, 2023년 기준 치매 환자 1인당 평균 2,436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사회 거주 환자(집 등에서 돌봄)의 경우는 1,734만 원, 시설·병원 거주 환자는 3,138만 원으로, 시설 환자는 지역사회 거주 환자보다 2배 가까이 높은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 (2023)

평균 2,436만 원

지역사회 거주 환자
1,734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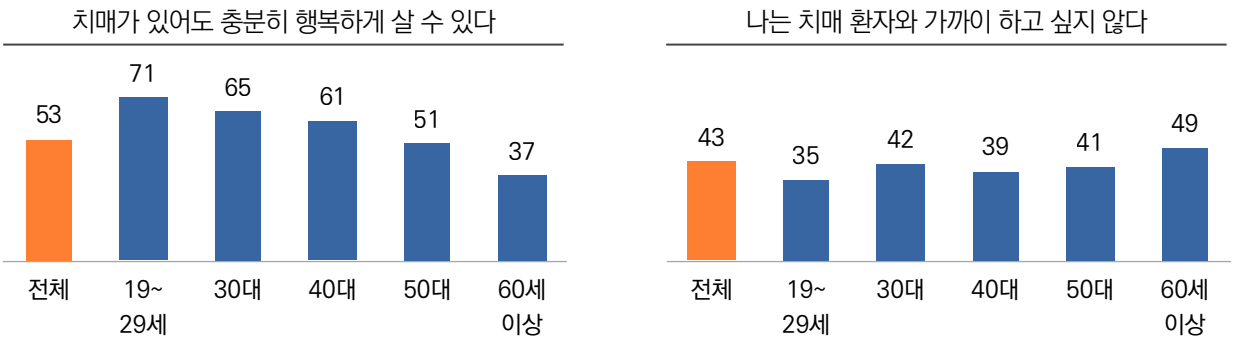
시설·병원 거주 환자
3,138만 원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03.13. (중앙치매센터·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갤럽조사연구소, 1차 조사: 60세 이상 1만1,673명(인지 선별 검사), 2차 조사: 1,900명(진단검사/사례분류), 3차 조사: 923명(치매돌봄 조사, 환자 564명+보호자 359명), 2023.08.22.~2024.03.18.)
*지역사회 치매 환자와 시설·병원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의 평균 값을 구함
Note)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보건 의료비, 돌봄비, 간접비로 구성
- 보건 의료비 : 병원 입원비, 병원 진료비, 약제비
- 돌봄비 : 장기 요양비, 강병비, 병원 이용 교통비, 보조용품 구입비
- 간접비 : 환자 시간비용, 보호자 시간비용, 환자 생산성 손실 비용

04 [치매 인식과 사회적 이해]
우리국민 43%, '치매 환자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 치매에 대한 수용/융화 차원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으로, '치매가 있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의 긍정률을 살펴본 결과, 국민 절반 이상(53%)이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저연령층(20대 71%)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 한편 '치매 환자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항목에는 43%의 긍정률을 보여 치매 환자에 관한 거부감 혹은 거리감을 느끼는 비중도 상당수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49%)에서 부정적 인식이 가장 높았다.

[그림] 연령별 치매에 관한 태도 (각각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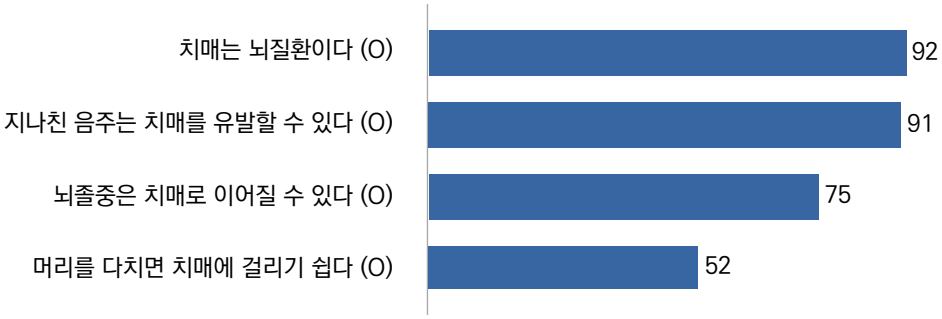


※출처 : 중앙치매센터/국립중앙의료원, 2023년 치매 인식도 조사, 2023.12.(전국 만19세 이상 일반국민 1,200명, 전화 조사, 2023.11.06.~11.17.)
*4점 척도

머리를 다치면 치매에 걸리기 쉽다(정답: O), 정인지 비율은 절반가량(52%)!

- 치매의 원인을 설명하는 문항에 관해 바르게 인지하고 있는지(정인지율)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국민이 '치매는 뇌질환이며'(92%), '지나친 음주는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91%)는 항목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 '머리를 다치면 치매에 걸리기 쉽다' 항목의 정인지 비율은 52%로 절반가량이었다.

[그림] 치매 '원인 차원 항목' 인지율 (각 항목에 관해 바르게 인지하는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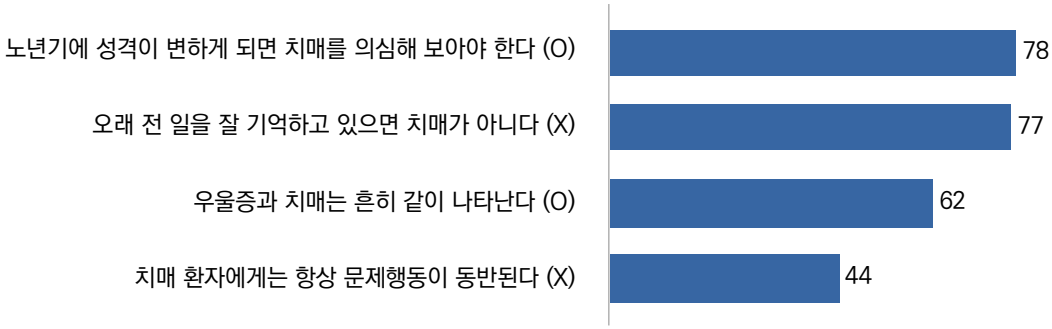


※출처 : 중앙치매센터/국립중앙의료원, 2023년 치매 인식도 조사, 2023.12.(전국 만19세 이상 일반국민 1,200명, 전화 조사, 2023.11.06.~11.17.)

잘못 인지하고 있는 항목 1위, '치매 환자에게는 항상 문제행동이 동반된다(정답: X)'!

- 이번에는 치매 증상 차원의 항목에 관해 국민들이 바른 정보를 갖고 있는지 살펴본다. '노년기에 성격이 변화게 되면 치매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O)', '오래 전 일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치매가 아니다(X)'의 경우 70%대 이상의 비교적 높은 정인지율을 보였다.
- 가장 잘못 인식하고 있는 항목은 '치매 환자에게는 항상 문제행동이 동반된다(X)'로 정인지율이 44%에 그쳤다.

[그림] 치매 '증상 차원 항목' 인지율 (각 항목에 관해 바르게 인지하는 비율, %)



※출처 : 중앙치매센터/국립중앙의료원, 2023년 치매 인식도 조사, 2023.12.(전국 만19세 이상 일반국민 1,200명, 전화 조사, 2023.11.06.~11.17.)

넘버즈 인사이트

이번호 요약

1. 80세 이상 여성, 10명 중 3명꼴 '치매'!

- 성·연령별 치매 환자 비중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71%)이 남성(29%)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70대까지는 10% 미만이었다가 80대 이상에서 26%까지 크게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80세 이상 여성의 경우 10명 중 3명이 치매 환자인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2. 비동거 가족, 1주일에 '3일가량'은 치매 환자 돌본다!

- 치매 환자 가족(시설·병원 이용자 제외) 중 비동거 가족의 지난 1주일 동안 치매 환자 돌봄 시간을 조사한 결과, 주당 평균 2.8일, 하루 평균 4.8시간, 주간 평균 총 18시간의 돌봄을 제공하고 있어, 가족의 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 평균 2,436만 원!

-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을 산출한 결과, 2023년 기준 치매 환자 1인당 평균 2,436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시설/병원 거주자의 경우 3,138만 원까지 치솟는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나는 매일 엄마와 밥을 먹는다 (정성기 저, 헤이북스)

관련 성경 구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목회 적용점

한국 사회의 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26년이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가 병원/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가족의 손에 맡겨져 돌봄을 받고 있다. 치매 환자 가족의 절반 가까이가 돌봄 부담을 '크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식사 준비, 청소, 외출 지원 등 일상적 가사노동이 주요 부담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실은 교회가 '돌봄 공동체'로서 역할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여준다. 단순한 위로를 넘어,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예: 가사봉사, 말벗 사역, 쉼 제공)을 제공할 때, 교회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금 공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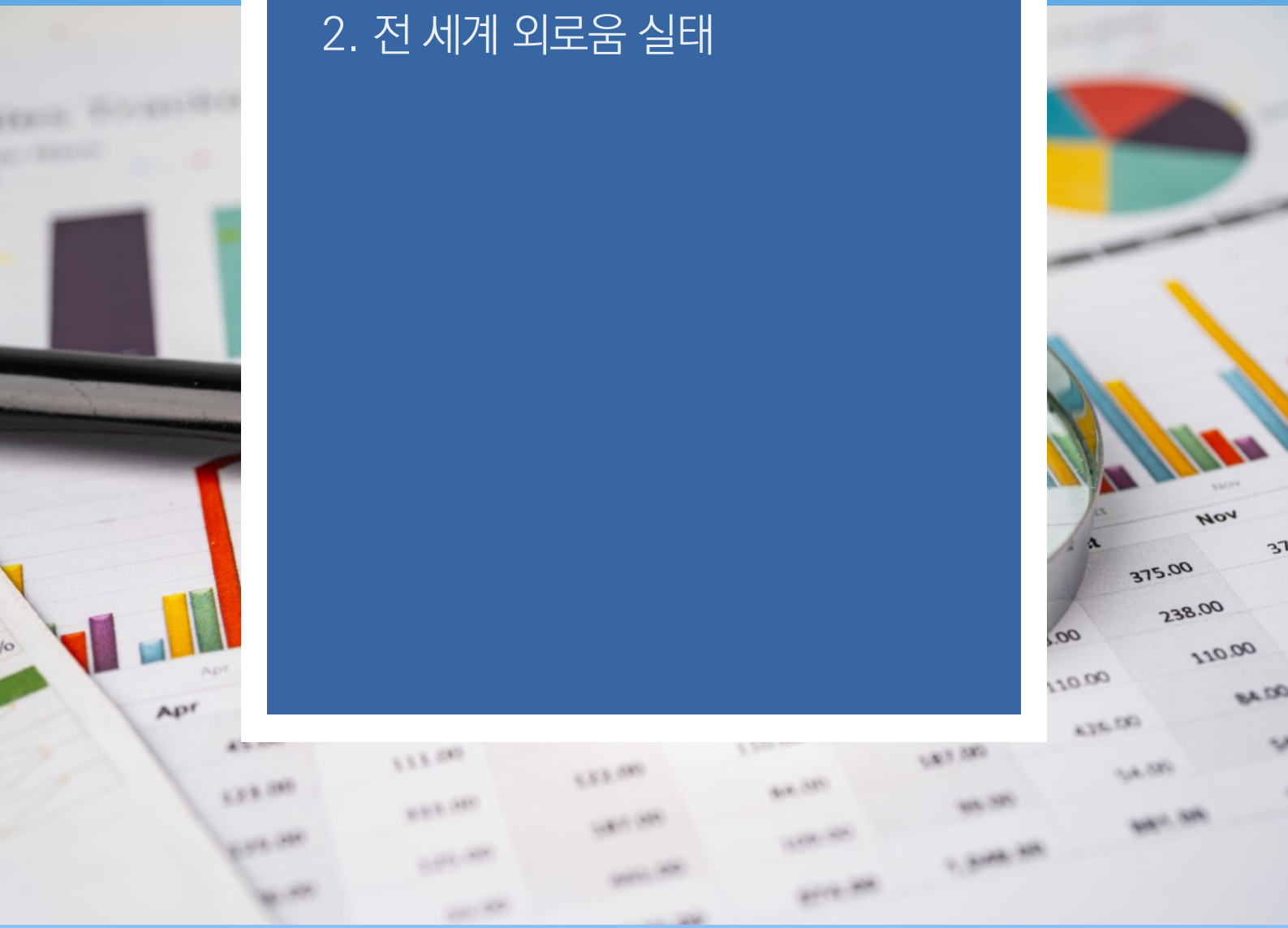
또한, 치매 환자뿐 아니라 교회 고령층을 위한 노인학교 운영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교회에서는 노인들의 인지능력 저하 예방을 위해 웃음치료와 노래교실, 미술치료, 감사노트 쓰기, 인문학 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들을 위한 소그룹도 치매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는데, 모임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는 동시에 우울감을 떨치고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교인 간 교류의 장인 셈이다.

한편 목회자는 치매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기 결정권과 존엄을 강조하는 설교와 상담을 통해 노년과 돌봄을 신앙 안에서 해석하는 사역이 필요하다. 또한 50대 이상 층에서 교회로부터 치매교육을 받고 싶은 욕구가 높은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치매 교육도 시니어 사역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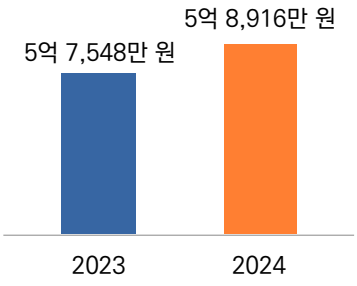
1. 우리나라 가구당 가계 순자산
2. 전 세계 외로움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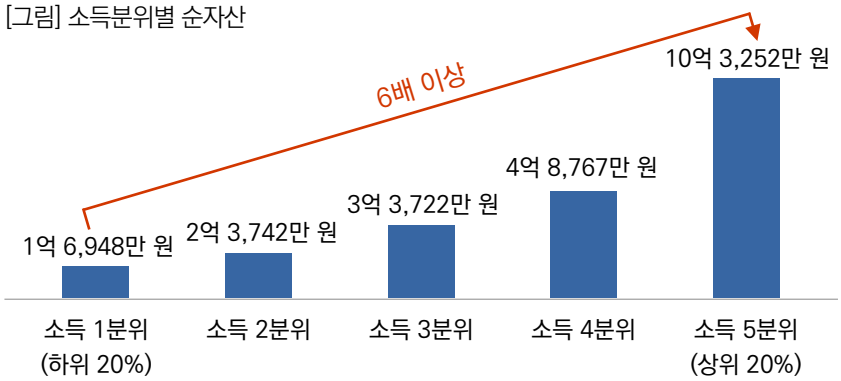
[우리나라 가구당 가계 순자산]
우리나라 가구당 순자산, 약 6억 원!

- 최근 한국은행·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가계 순자산(전체 자산-부채)은 5억 8,916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3% 증가한 수치로, 가계 전체 자산에서 빚을 뺀 실질 순자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소득 분위별'로 보면 소득 1분위인 저소득층(하위 20%)의 경우 가계 순자산이 1억 6,948만 원인데 반해, 소득 5분위 고소득층(상위 20%)은 10억 3,252만 원으로 무려 6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그림] 가구당 평균 가계 순자산*



[그림] 소득분위별 순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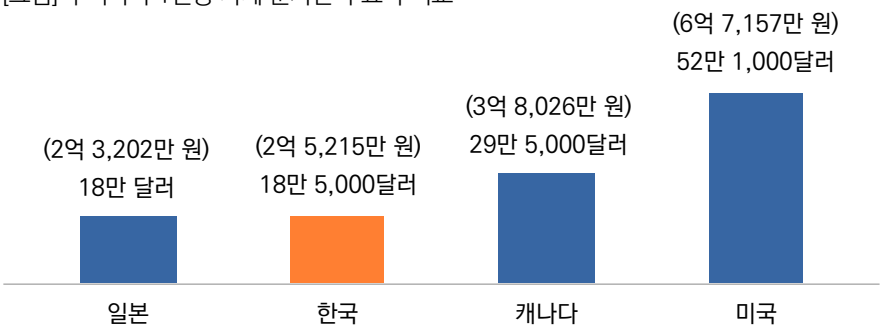


※출처 : 문화일보, "빚 빼고 6억 자산 있어요? 대한민국 평균입니다", 2025.07.17. (https://www.munhwa.com/article/11519736)
※원출처 : 한국은행·통계청, 2024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 2025.07.17.
※출처 : 통계청 KOSIS,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위별 순자산 점유율), 2024.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AAD02&conn_path=I2)
*가구당 가계 순자산=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자산(1경 3068조 원)/추계가구 수(2218만 가구)

한국 1인당 가계 순자산, '일본'보다 많아!

- 이번에는 우리나라 1인당 가계 순자산을 세계 주요국(일본, 캐나다, 미국)과 비교해 보았다. 시장환율로 환산한 1인당 가계 순자산은 한국 18만 5,000달러(2억 5,215만 원)로, 일본(18만 달러, 2억 3,202만 원)보다는 많았지만, 미국, 캐나다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그림] 우리나라 1인당 가계 순자산 주요국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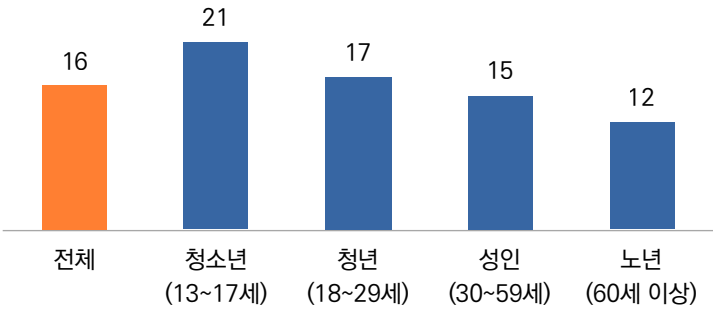


※출처 : 문화일보, "빚 빼고 6억 자산 있어요? 대한민국 평균입니다", 2025.07.17. (https://www.munhwa.com/article/11519736)
*시장 환율로 환산 (한국은 2024년 환율(1363원) 기준, 그 외 국가는 2023년 말 환율(1289원) 기준임에 유의)

[전 세계 외로움 실태]
전 세계 시민 6명 중 1명, '외로움 느낀다'!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사회적연결위원회는 지난 6월 '외로움에서 사회적 연결로: 더 건강한 사회로 가는 길을 그리다(From loneliness to social connection: charting a path to healthier societies)'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외로움 비율을 발표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16%, 즉 6명 중 1명 정도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추정됐다.
- 연령별로는 청소년(13~17세)의 외로움 비율이 2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청년(18~29세) 17%, 성인(30~59세) 15%, 노년층(60세 이상) 12%순이었다. WHO는 청소년기의 외로움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이 시기에는 발달 단계상 사회적 연결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림] 연령별 세계 외로움 비율 (2014~202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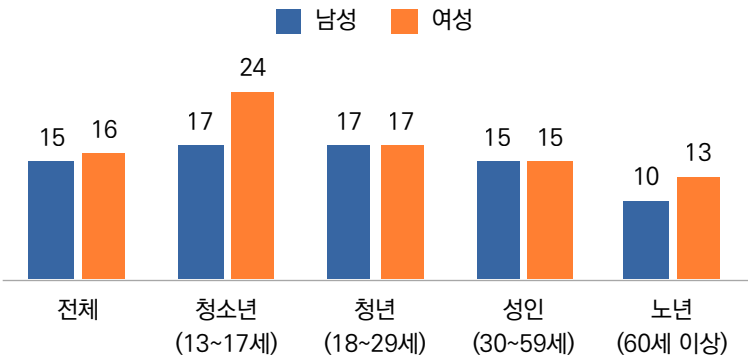


※출처 : WHO(사회적연결위원회), '외로움에서 사회적 연결로: 더 건강한 사회로 가는 길을 그리다' 보고서(From loneliness to social connection: charting a path to healthier societies), 2025.06.30.

여성 청소년, 전 세대 중 가장 외로움 많이 느낀다!

- 전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외로움 비율은 각각 15%, 16%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청년, 청소년(각각 17%)이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추정됐다. 여성의 경우, 여성 청소년 비율이 24%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성·연령별 세계 외로움 비율 (2014~202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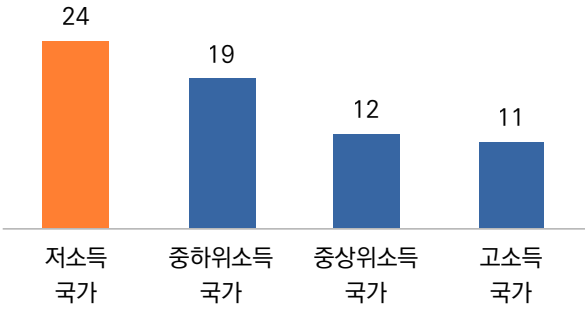


※출처 : WHO(사회적연결위원회), '외로움에서 사회적 연결로: 더 건강한 사회로 가는 길을 그리다' 보고서(From loneliness to social connection: charting a path to healthier societies), 2025.06.30.

저소득 국가의 외로움 비율, 고소득국의 2배 이상!

- 이번에는 국가 소득 수준에 따른 외로움 비율을 살펴본다. 조사 결과, 국가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 특히 '저소득 국가'의 외로움 비율은 24%로, '고소득 국가'(11%)의 두 배를 넘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차이에 대해 '빈곤이 사회적 관계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는 데 가장 흔한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림] 국가 소득 계층별 외로움 비율 (2014~2023, %)



※출처 : WHO(사회적연결위원회), '외로움에서 사회적 연결로: 더 건강한 사회로 가는 길을 그리다' 보고서(From loneliness to social connection: charting a path to healthier societies), 2025.06.30.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60호 (2025년 7월 4주)

– 국정운영 평가, 국정운영 신뢰도, 통일 인식, 주변 5개국 호감도

유권자 36% "대선 때 방송 토론·연설 보고 후보 선택"

연합뉴스_2025.7.23.

사회 일반

"아이 낳으면 1억 줄게" 통했다…출생아 증가율 1위 찍은 동네

한국경제_2025.7.24.

더 강해진 한국 '여권 파워'…세계 2위로 한계단 상승

연합뉴스_2025.7.23.

맛보기는 끝?… AI챗봇, 한달 요금 40만원까지 치솟아

조선일보_2025.7.23.

한국 체류 외국인 273만명 '역대 최대'…3명 중 1명은 중국인

연합뉴스_2025.7.27.

[팩트체크] 개미는 못 먹는다고?…식용 허용되는 곤충은

연합뉴스_2025.7.28.

고령화에 가파른 의료비 증가…"2072년 건보료율 25% 달할 수도"

연합뉴스_2025.7.27.

"나 죽거든 자연에 뿌려다오"… 납골당·매장 시대 저문다

조선일보_2025.7.23.

[기획] 흡연 행태의 변화와 인식 차이 비교 – 금연 정책,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5.7.22.

선호 자녀 성별 – Gallup Internationl 다국가 조사

한국갤럽_2025.7.24.

아동 • 청소년 • 청년

[학교가 무너진다], (국민일보)

〈상〉 자퇴 권하는 부모… 붙잡지 않는 학교 _2025.7.21.

〈중〉 “학교는 자거나 학원 숙제하는 곳… 진짜 공부는 학원에서” _2025.7.23.

〈하〉 교단 고령화 쓰나미 닥친다… 10년 뒤 교사 60%는 ‘50대 이상’ _2025.7.24.

“성적 좋아도 불안” 아동 39.6%, 삶의 만족도 높은 나라서 다시 태어나길 원해

중앙일보_2025.7.24.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News&Why] 게임·숏폼 중독에 공부 뒷전… 영포자·국포자, 남학생이 2배
조선일보_2025.7.23.

"흡연·전자담배 사용 청소년, 우울·불안 위험 최대 90% 높아"
연합뉴스_2025.7.24.

졸업 후 1년 넘게 '백수' 56만…3년 이상 무직 청년 23만
연합뉴스_2025.7.24.

노인

"사회적 지지받는 노인일수록 유서 작성 등 죽음 준비도↑"
연합뉴스_2025.7.22.

경제 • 기업

'정년연장' 엇갈린 세대 인식…청년은 "신규채용 감소", 중장년은 "영향 없음"
중앙일보_2025.7.23.

취업 포기자 학력 살펴보니…대졸자 〉중졸자 첫 추월
매일경제_2025.7.22.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 전년比 37% 늘어…男 비중 역대 최고
연합뉴스_2025.7.27.

"김 대리, 별로 안 덥지?"...오늘도 사무실은 '에어컨 전쟁'
조선일보_2025.7.24.

2030 교사 80% “경제지식 보통 이하”… 기업가정신 대표 기업인은 정주영 1위
국민일보_2025.7.25.

건강

폐암수술 14년간 3배↑…고령·女환자 늘고 입원기간 절반으로
연합뉴스_2025.7.24.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횃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책연구소, 라잇나우미디어,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치윰, 크리스챤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PayPal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담임목사 청빙 컨설팅

청빙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청빙문화는 중직자 중심으로 후보자의 설교 능력을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목사 부임 후 갈등이 생기고 교인이 떠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성도들의 참여와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 청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빙 프로세스

01 청빙방식 결정 (공모,추천)

02 최적화 된 목사 Profile 도출 조사

03 1차 선별 도출된 Profile에 근거하여 지원자 선별

04 2차 선별 선별된 후보자 평판 조사

05 최적의 담임목사 추천

청빙 컨설팅 프로그램

전문성

조사 전문기관으로서 성도의식 조사 전문성, 청빙 컨설팅 경험,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로 청빙 절차의 신뢰도와 전문성 높음

객관성

외부 기관으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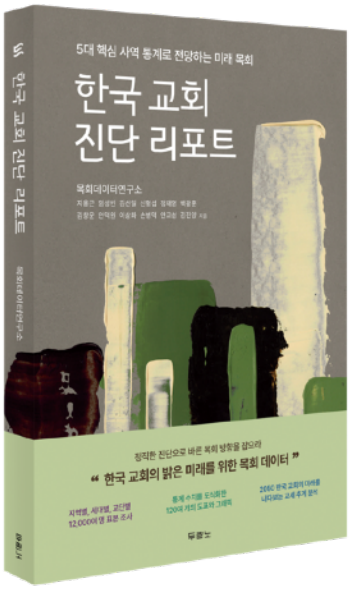
체계성

성도들의 선호 조건, 교회의 전통과 문화, 비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적합한 청빙 후보자 추천

목회데이터연구소는 귀 교회에 최적화된 목회자 청빙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의 : 목회데이터연구소 (Tel. 02-322-0726) 담당 : 김찬솔 과장

연구소 소식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출간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올해 2월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를 출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 상황에 직면 했다는 인식 아래, 성도, 목회자, 청소년, 선교사를 대상으로 목회 5대 영역별 대규모 조사를 실시해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진단했습니다. 현재 이 리포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책 활용을 통한 개교회 진단〉

책 맨 뒷장 큐알코드 통해 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별첨 설문지를 사용, 개교회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2-322-0726, 유영민 간사)

저자
지용근, 임성빈, 김선일, 신형섭, 정재영, 백광훈
김창운, 안덕원, 이상화, 손병덕, 안교성, 김진양

책 구입 안내

Upward	Forward	Inward	Outward	Onward
건강한 교회의 맥박 **예배**	변화된 삶을 위한 양식 **교육**	그리스도의 몸 **친교**	예수의 섬김 **봉사**	지속되어야 할 대위임령 **선교**

연구소 소식

다음 주 8월 5일(화)에는 여름휴가 기간으로 한 주 쉽니다.
〈넘버즈 298호〉는 8월 12일(화)에 발간합니다.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